

2004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자 초청 다과회 말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나 못 되나 모국은 꼭 와 보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국에 와서 봤을 때 활력이 있고 희망이 보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밝으면 자꾸 오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때 가슴이 아프고 다시 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참 좋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가시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와야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고, 다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챙겨서 작은 불안요소가 큰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했습니다만, 지금은 것으로는 도저히 경쟁을 해낼 수 없습니다. 질적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기술혁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산력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주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 시간이 걸립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도 수출은 계속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잘 감당하고 있고 금년 들어 지난해 대비 40% 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지난날의 몇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졌죠. 이것은 점차 살아나도록 그렇게 관리가 잘될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의 경쟁력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정책에 집중해 나가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성공하신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 훌륭한 인적자원이 국외에 많이 계신데, 과거에도 쪽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하도록 우리는 바라고, 또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개혁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이 속도대로만 해 나가면 관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면 창의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그런 풍토가 정착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때때로 해외에 계시면서 보면 아직도 한국의 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보도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저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또 부끄럽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넘어가려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만, 잘못된 것을 숨기고 덮어 놓고 가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쾌한 많은 보도들을 접했겠지만, 저는 그것이 과거의 어두운 유산들을 청산해 가는 과정,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몸의 병을 다 드러내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 보고 싶은 모국이 항상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걱정스럽고 뭔가 도와 줘야 될 모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대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따뜻하고 넉넉한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가 잘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것은 경제이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이루어낸 여러 가지 업적들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국민이 잘해 나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국민, 바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거나 어떤 민족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도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국인들의 열정과 역량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될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그동안에 겪으신 여러 가지 고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작든 크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모국에 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자랑스럽고 또 고무되는 그런 업적들입니다. 여러분도 매우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동북아 중심국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는 국가가 한 번 되어 보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좀 중심이 되어 보자, 그런 목표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동북아 얘기를 했을 때 ‘동북아 중심국가’가 아니고 ‘동북아 시대’였습니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동북아 시대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넣자고 ‘동북아 경제중심’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동북아 경제중심’을 빼고 ‘동북아 시대’라고 얘기를 해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단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100년 전, 120년 전 국권을 침탈당했던 때와 같은 어리숙한 실력은 아닐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상황이 100년 전과 비슷한 역학관계가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디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한국인의 실력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00년 전과 같은 일을 거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질서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 국가주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오로지 경쟁하고 적대하고 불신하고,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이 잘되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우리 한국이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중국과 경쟁하고 일본과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멀리 있지만 사실상 가까이 있고, 러시아도 강대국입니다. 4개의 강대국 사이에 우리 한국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수백년 동안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잘 다듬어 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에서 큰 변화가 생기면 한국에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우리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정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종속적인 역사였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역사였느냐에 관해서는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심에 서서 주변에 영향에 끼치면서 주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영향을 받은 국가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변방의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대등한 질서 속에서 각기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협력과 통합의 질서 속에서 각국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종속되지 않은 역사들을 잘 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시장과 제도, 여러 가지 질서들을 서로 통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개성과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서 필요한 공동의 질서들을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등한 협력의 질서, 통합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생성해 나가야만 여기에 살고 있는 각국이 남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말하자면 변방의 운명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자주

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스스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질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질서에 있어서 중국은 너무 힘이 세서 '주도한다'고 하면 주변 국가들이 좀 불안할 수 있고, 러시아도 강대국이고 유럽에 걸쳐 있고, 일본도 원체 강대국이고 과거의 역사가 있고 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또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의심을 받은 만한 아무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주도해 나가는 이런 능동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질서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자, 운명을 한 번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북아 시대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만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함께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러분께 다하지 못하고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반부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도 우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잘 개방하고 개혁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여러분이나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도 함께 가져 주십시오. 직접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협력해 가려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성공하셨지만 더 큰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